

**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CONTENTS • • • • •

01. 돌봄	
•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10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
•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12
02 . 배움	
•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15
• 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6
03.일	
•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하여 가족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	18
•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19
•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21
04 .쉼	
•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24
• 국민 누구나 동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
05 . 노후	
•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
•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29

● ● ●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2 국민의 삶이 닥라집니다

06. 소득

•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32
•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3
07 . 환경·안전	
•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
•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38
08. 건강	
•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
09 . 주거·지역	
•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44
• 사는 곳 어디서나 생활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돌봄·교육·건강 등 생활서비스를 지워하겠습니다.	45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대국민 보고('19. 2. 19.) 대통령 모두발언 中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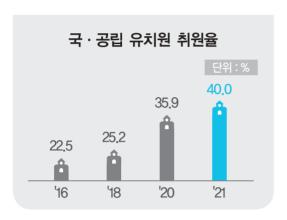




돌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 영·유아 10명 중 4명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게 됩니다.
 -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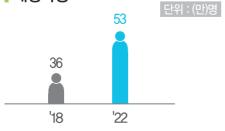


- ♥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 2022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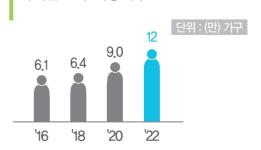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 교실활용(지자체) 등 34만명 ('22년까지)
마 을돌 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등 19만명('22년까지)
아이돌봄	맞벌이 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 파견 12만 가구 ('22년까지)
공동육아나눔터	열린 공간에서 공동으로 육아를 지원

온종일 돌봄(학교돌봄+마을돌봄) 대상학생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성인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 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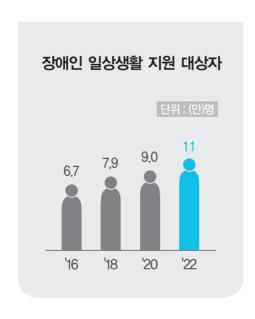
● 복지사각지대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역 내 학습·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낮 시간 의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획일적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체·가사활동 보조,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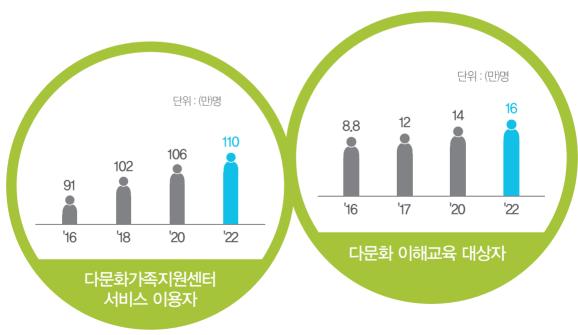
돌봄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이 대폭 확대됩니다.
 - 미혼모,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 다문화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사회적 편견도 줄어듭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확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성장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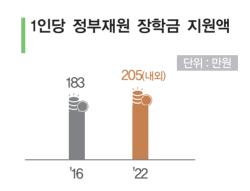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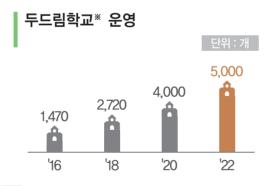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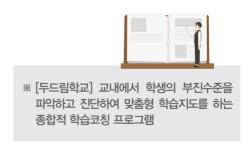
-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지고. 대학생들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 19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도입, 21년 전 학년 대상 전면 실시.





- 공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이 강화되어. 교육 격차가 완화됩니다.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 확대





국민의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공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이 강화됩니다.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못하던 C군은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습보조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두드림학교 학습코칭팀의 집중적인 도움을 받아 한글 능력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학교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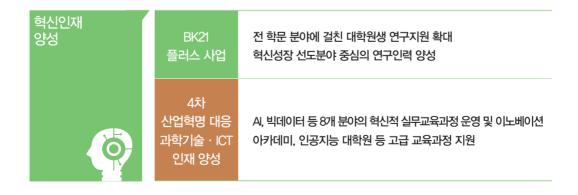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 수업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으로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됩니다.
 -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다양한 수업 방법 개발



※ [고교학점제] 모든 학생의 진로설계와 성장을 돕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 혁신인재 12만 7천명이 양성되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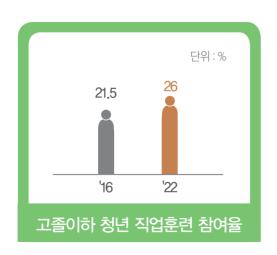
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 학점은행제, K-MOOC 등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 [K-MOOC] 수강인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한 온라인 강좌

-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 고졸이하 청년에게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계좌 우선 발급
 - 중소기업 전담 직업훈련지원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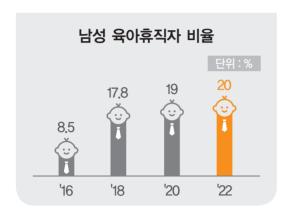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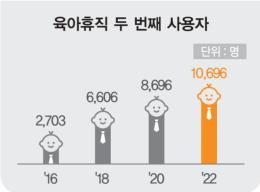


일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하여 가족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

- 남성 육이휴직자와 두 번째 육이휴직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강화(18, 200만원 → 19, 250만원)





- 임금삭감 없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씩 **늘어납니다**.
 - 육아기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지원 강화
 (통상임금의 80% → 100%, 월 상한 150만원 → 200만원)





5,807명

'1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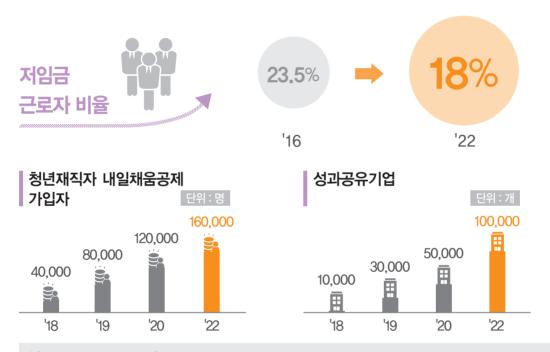
국민의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일과육아를 남녀가함께하여 가족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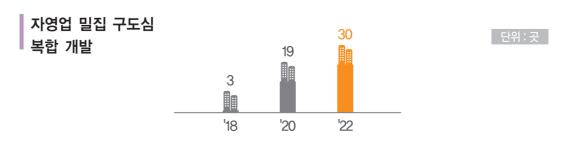
"직장에 다니는 B씨는 퇴근시간이 불규칙해서 20개월 된 아이를 휴직한 아내가 전담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의 휴직기간도 끝나가고 부모님들께 아이를 맡기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아빠육아휴직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육아를 하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가족에도 돈독해지고, 육아휴직 3개월 간은 월 최대 2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어 가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 안착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도 줄어듭니다.
 -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 제도설명,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강화
 - (임금격차 완화)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 「임금격차 해소 로드맵」추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 적립



-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사업
- 2) [성괴공유기업] 성괴급, 성괴보상공제, 임금상승, 우리사주 등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중소기업
-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자영업 성장·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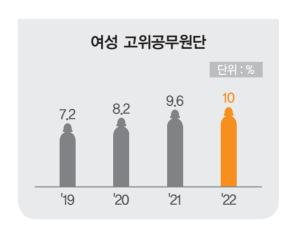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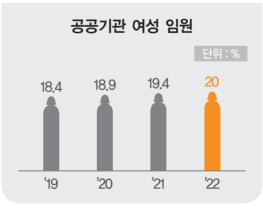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 문화 개선으로 근로자의 의견이 존중받고, 일터에서의 학습기회도 늘어납니다.
 - 혁신 의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컨설팅, 노사인식 개선사업 등 집중 지원



- ※ [일터혁신지수] 노사발전재단에서 제시하는 국내 기업의 일터혁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노사관계, 인적 자원관리, 인적자원 개발, 작업조직 4개 부문으로 구성(각 부문 100점 만점)
-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늘어나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됩니다.
 - 공공·민간의 의사결정 권한 직위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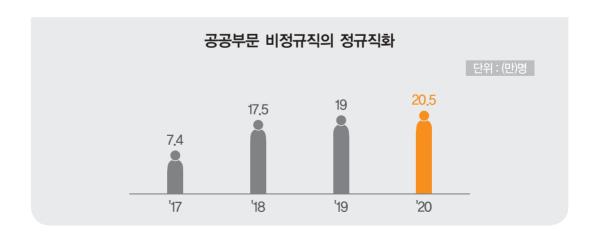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민생 서비스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국민들이 높아진 안전·복지 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
 -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전담팀 설치
 - '22년까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1만 2천명, 방문간호사 3.490명 확충



○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관행이 대폭 줄어들고, 일자리의 질이 높아집니다.







쉼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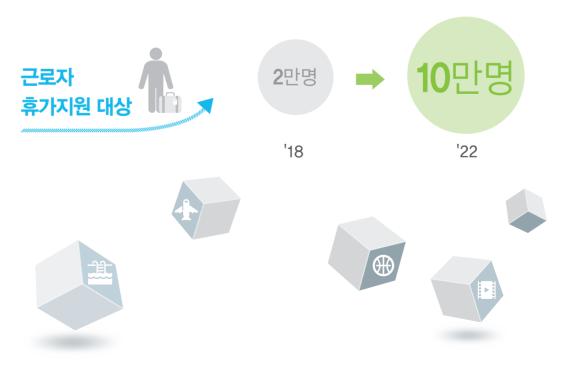
○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휴가시간은 늘어납니다.

- (노동시간 단축 대상기업)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19년) → 50~299인 사업장(20년)
- (취약기업 지원) 특례제외업종 등 모니터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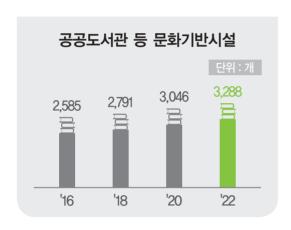
일터에서도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 지원) 기업 내 휴가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국민 누구나 동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 동네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저소득층의 문화·스포츠 향유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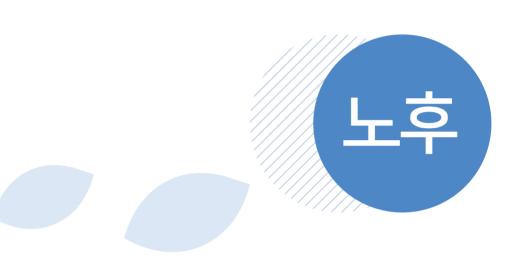
국민의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저소득층의 문화·스포츠 향유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OO동에 사는 B씨는 평소 가족끼리 대화가 많이 없었는데 문화누리 카드를 이용해 영화를 같이 보고나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색 했던 가족 분위기가 좋아지고 문화적인 풍요를 느꼈습니다."

"C학생은 생활비가 빠듯해 운동을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지만, 최근 스포츠강좌이용권(월 8만원)이 지원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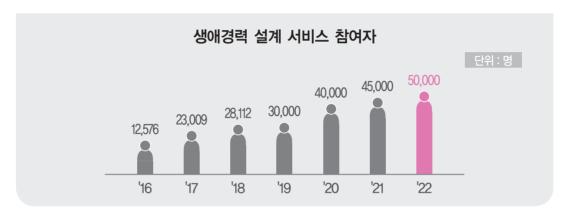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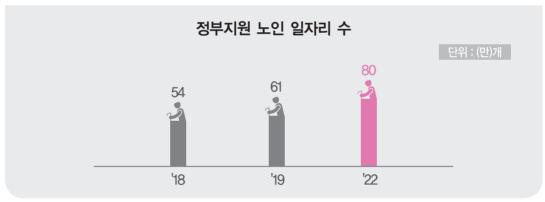
00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가 두 배로 늘어나고, 노인일자리도 확대됩니다.





○ 문화로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에도 문화·체육활동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 문화· 체 육 활동 지원	문화활동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 교육 강좌와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지원 확대
	체육활동	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활용해 어르신 체육교실 확대
	생애전환 문화예술 교육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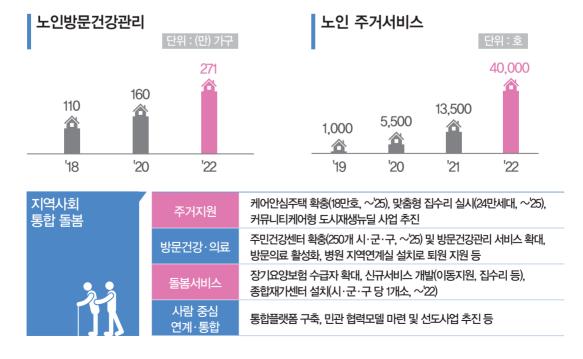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 치매 부담비용이 절반으로 줄고,모든 지자체에서 치매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4명 중 1명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됩니다.

- (방문건강관리)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만성질환 진료 등 건강관리
- (주거서비스) 노인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와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누리며 지낼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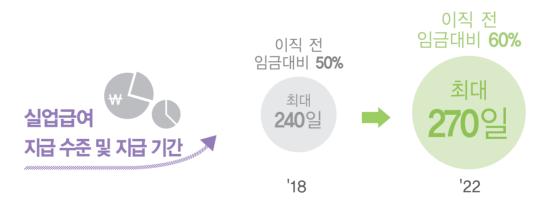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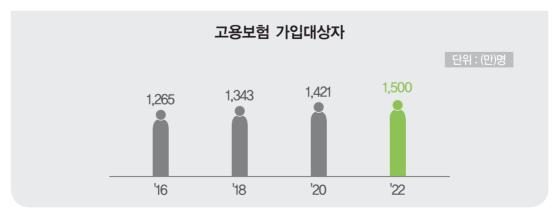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u>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u>

실업부조가 시행되어 근로빈곤층의 생계가 보장되고, 재취업이 원활해집니다.

실업부조 도입	1단계('17~'18)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구직 촉진수당, 3개월 간 30만원
	2단계('19)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 대상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50만원
	3단계('20)	저소득 근로빈 곤층 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 157만명의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개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가입 기준 월보수 상향(190만원 → 2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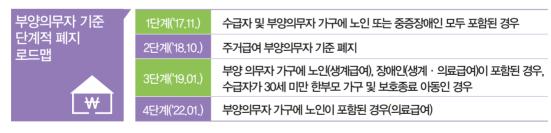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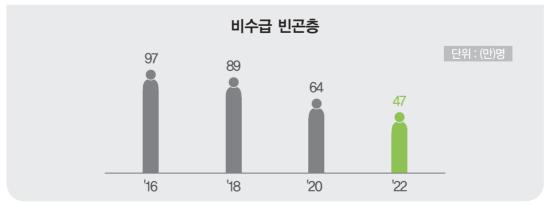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고, 노인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강화됩니다.





- 생활이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줄어듭니다.
 -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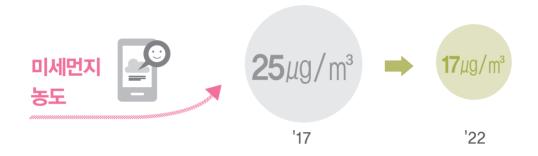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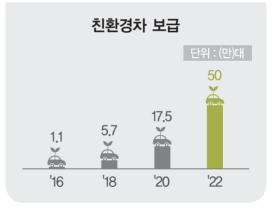
환경·안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가 줄어들어 미세먼지 환경이 개선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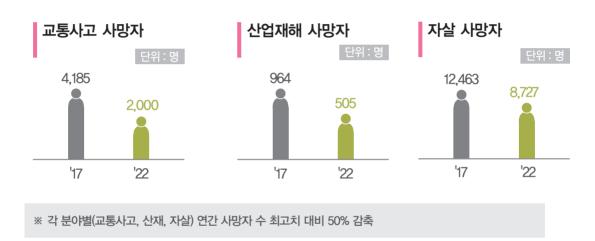


○ 유해 화학물질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유해 정보 알권리 강화	유해성 정보 확보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1,750종) 정보 공개
	고위험물질 집중관리	중점관리물질(672종) 모니터링, 필요 시 사용제한
	국민 알권리 보장	기업이 등록한 유해성정보 대국민 공개(~'2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무시 관행 근절로 일상 속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듭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제거	노인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노인보호구역 시설 정비 (매년 104개소)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19) 15개소 → (20) 30개소 → (21) 45개소 → (22) 60개소
	안전교육 확대	매년 5,000명의 노인·장애인 등 안전약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환경 안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 여성폭력범죄 신고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통합상담소 확대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폭력 통합 상담소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신속한 삭제지원(당일삭제)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동학대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줄어듭니다.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인력 확대 및 전담팀 설치
 -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고도화 지속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아동에 대한 조기 예측 및 지원 시스템 (18. 3.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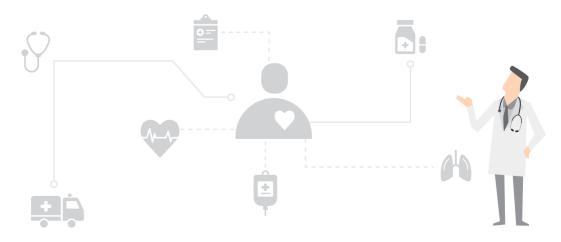


건강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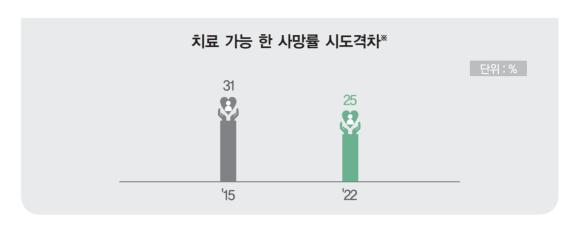
- MRI, 초음파,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의 2/3가 줄어듭니다.
 -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 비용(특진·상급병실·간병) 실질적 해소
 -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편입(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두경부·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 양질의 의료자원을 확충하여 치료가능한 사망률의 지역격치를 완화하겠습니다.

-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권역/지역 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을 통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 (공공의료 인력 확충) 공공의료 근무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개교 추진



※ [치료 가능 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 시도격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로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10만 명 당) 최저시도 44.6명 vs 최고시도 58.5명[15]

저소득층이 경험했던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의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군(2세)은 만성 신장병, 빈혈,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신이식술시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21일간 입원하여, 총 의료비 4,395만원 중 본인부담으로 1,243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 폐지, 바이러스 배양검사 급여 전환, 상급병실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당초보다 약 68% 부담이 감소한 397만원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지역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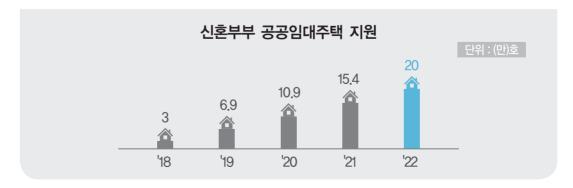
-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져 주거비부담이 완화됩니다.
 - '22년까지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 전체 주택 수 중 장기공적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16. OECD 평균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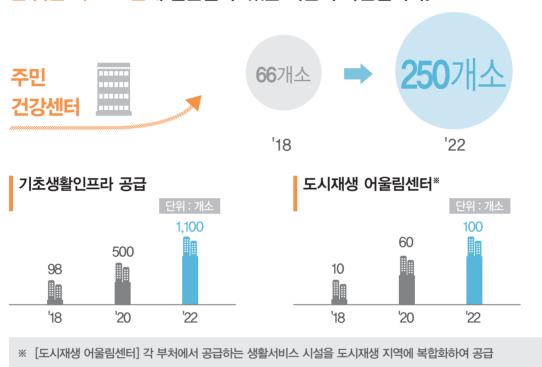


- * [주거급여]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본적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지원
- 모든 신혼부부가 주거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시혼희망타운 시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구입·전세지금·대출지원 등 신혼부부 88만 쌍에게 주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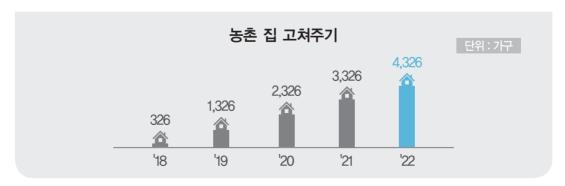


사는 곳 어디서나 생활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돌봄·교육·건강 등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 돌봄·교육·건강 등 기초생활인프라가 대폭 늘어나 동네는 도보로 10분, 먼 곳은 차로 30분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농어촌에 대한 기본 생활서비스 지원이 늘어납니다.
 - (도서지역)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LPG, 유류 등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를 지원
 - (농촌지역)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시행
 - (대중교통)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사유로 교통수요가 없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 행 처 | 교육부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홈페이지 | http://www.moe.go.kr/spc